

명사추천

분서 100선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 일연(一然)스님께서 편찬한 역사서이다. 총 5권 2책으로 되어 있는데 왕력(王曆) 기이(紀異) 탐상(塔像) 의해(義解) 신주(神呪) 감통(感通) 피은(庇恩) 효선(孝善) 등 9편 14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국·가야·후고구려·후백제의 연표도 붙인 왕력권에는 중국의 한·위·진·송·제·양·진·수·당(漢·魏·晉·宋·齊·梁·陳·隋·唐) 등 중국의 연표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기이편에서는 고조선으로부터 후삼국에 이르기까지 기이(紀異)한 역사를 서술하고 흥법편은 3국불교의 수용과 융성, 탐상편에서는 탑과 불상에 관한 사실, 의해편에서는 신라교승들의 전기, 신주편에서는 신이한 스님들의 기적, 감통편에서는 영이감응(靈異感應)의 설화, 피은편에서는 초탈고일(超脫高逸)한 인물들의 행적, 효선편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불교도들의 선행 미담을 적어 3국불교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종교·언어·민속 등 총망라 고대불교사상 이해에 큰 도움

동국여지승람이나 동사강목 같은 데서는 '허황한 이야기'라 평가하고 있지만 고대한국의 역사·지리·문화·종교·언어·민속·사상·미술·고고학을 원천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료이므로 일역 영역 본까지 나와있는 실정이다.

1281년 충렬왕 7년에 편찬된 이 책은 1310년 제자 무극(無極)에 의하여 간행되고 그 뒤 간행된 석남본(石南本) 송은본(松隱本)이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1512년 경주부윤 이계복이 복각(復刻)한 것을 순암 안정복이 소장하고 있다

가 1916년 일본 이마니시(今西龍)에게 소장되어 마침내 천리대학 도서관에 비치되게 되었다.

이 단권의 역사와 화랑 이두문자 향가 불상 담 등은 한국 고대의 문화 미술 건축 국민운동의 갈래가 되고 있다.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고 황인준박사의 강의를 듣고 대학 1학년때 읽게 되었지만 실제 공부하기는 대학원 1학년 때 권상로박사님께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부터이다.

나는 이책에 의하여 불교영업설화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불교설화대사전(上·下)을 내게 되었다.

요즘 권상로박사님 번역본에 주해(註解)를 내면서 그 가치를 새삼스럽게 인식하고 있으며 불교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인이면 누구나 꼭 한번씩은 읽고 생각해 보아야 할 역사서라 생각한다.



한정섭

〈한국불교교화위원장〉

출판가 화제인물 만나봅시다 귀화영국인 서강대 안선재교수

‘소설 화엄경’ 英譯 한창

고은씨의 소설(화엄경)이 영어로 번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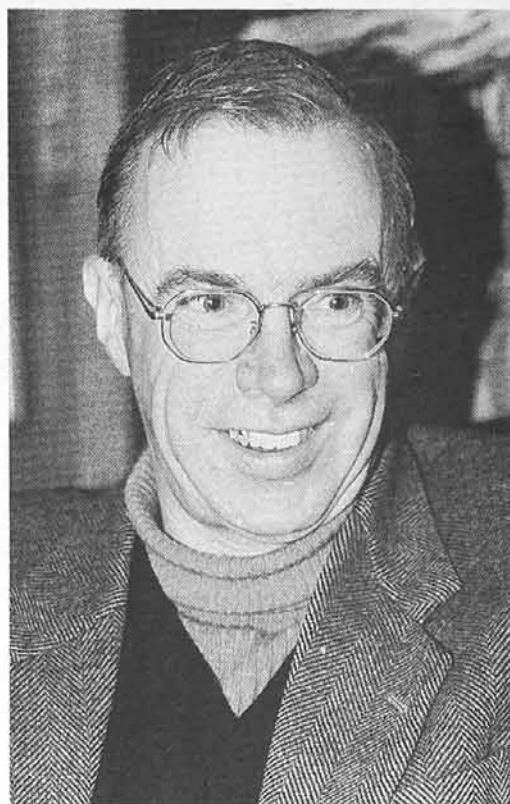
91년 7월 출간, 장기간 베스트셀러로 꼽혀 온 (화엄경)을 서강대 영문과 안선재교수가 영역하고 있다. 안교수는 올 여름까지 번역을 마치고 가을에 미국에서 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유의 용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다며 불교 용어는 최대한의 의미 전달을 위해 산스크리트 표기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괄호속에 해설을 붙여가며 번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이 가톨릭의 수사이지만 한국과 한국의 정서가 잘

성공적인 번역물이 나올 것이란 생각 때문입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였듯이 서양에서도 장기간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 믿는다.

소설(화엄경)이 단순한 소설적 재미 이전의 존엄한 신앙성을 갖고 있으므로 번역에도 그만큼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은씨의 소설(화엄경)을 영어로 번역, 올 가을에 미국에서 출간할 예정이라는 안선재 교수.

한국불교정서 서양 전파위해 3년동안 작업 “가을 출간 예정”

안교수는 가을까지 사료로 지난해 한국에 귀화한 영국인. 그는 (화엄경) 번역에 불두해 한국 이름도 영문이름 안토니 티크와 발음이 비슷한 (화엄경)의 주인공 선재(善財)로 정했다.

80년부터 서강대 강단에 서은 안교수는 “화엄경은 한국 불교 소설의 최고봉이라 생각한다”며 “한국의 불교정서를 서양에 전파하고 싶어 번역에 착수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서울대 영문과 김영무 교수의 도움을 받기 하지만 가능한 원전에 충실해 고은씨의 소설적 감각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게 안교수의 설명이다. 또 안교수는 “불교

아 귀화까지 했다는 안교수는 “불교를 제외한 한국의 정서는 상상도 못한다”는 소신이 화엄경의 번역에 더 큰 열정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엄경)의 주인공 선재의 구도의지를 배우는 삶을 원하고 있다. 교수로서의 삶은 끝없는 탐구의 자세로 이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신선하게 유지시켜 준 것이 선재의 이야기였다는 것. 원전을 한페이지씩 읽으며 차근차근 번역하고 더러 불교관련 공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안교수의 번역 작업은 벌써 3년을 넘기고 있다. “서두르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작품보다 정성을 기울여야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며 한국의 정서를 서양에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그의 번역작업은 이미 많은 결실을 거뒀다.

안교수는 지난해까지 구상씨의 시집 3권, 김광규씨의 시집 3권, 서정주씨의 초기시집 3권을 영구에서, 고은 시선집 (나의 파도소리)를 미국 코넬대학 (동양사 시리즈)로 각각 펴냈다. 또 이문열씨의 소설 (시인)과 고은씨의 선시집 (뒤나) 현상병씨의 시집 등도 번역 중인데 금년내로 영국과 미국에서 출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동경 국제 도서 박람회 '겨레의 땅...' 영어판출품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일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경 국제도서박람회'에 불서전 문출판사에서는 불지사(대표

출판단신

김형균)가 참가,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을 소개한 (겨레의 땅 부처님 땅)의 영어판(NAMSAN)과 일어판(古都

慶州神祕中の南山)을 출품했다.

도로 국제도서박람회는 세계 4대 도서축제의 하나로 전세계 2천여 출판사에서 도서 출품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백여 출판사가 참가 또는 참관했다.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Lists top 10 best-selling books including '영원한 자유의 길', '자네, 도가 된지 아나', etc.

구입문의: (02)737-0695

일본문화 뿌리는 '불교와 禪' article with image of a book cover and text discussing the roots of Japanese culture in Buddhism and Zen.

한국 근·현대 고승 족적다뤄 article with image of a book cover and text discussing the lineage of Korean Buddhist masters in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초기 수행자 깨달음의 노래 article with image of a book cover and text discussing the songs of enlightenment for early practitioners.

불음 가득 · 범함 가득

책방 여시아문은



국내 최대의 불교 전문 서적만을 취급하는 서점입니다.

60여 평의 여유로운 공간에 국내외의 불교관련 서적으로만 2만 권 3천 여 종을 갖추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초심자에서 학자에 이르기까지 독자들 한분한분의 기대에 따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감증을 풀어드립니다.

국내외의 서지정보(회귀본, 서적, 논문, 잡지)· 불교학술논문· 불교문화예술정보 등 다양한 불교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항상 불자 여러분의 공부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공간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가 배치, 컴퓨터 검색 체제, 그리고 언제나 편안히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의 만남과 함께 범함 들북 들북할 수 있는 곳, 책방 여시아문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불자들의 자랑입니다.

여시아문은 심보에 귀의하는 서점입니다. 불법 흥포를 위해 회향하는 서점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현대화·생활화·세계화를 실천하는 서점입니다.